

10/1/23

설교 제목: 부부 간의 실천적인 삶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에베소서 5 장 22-33 절

(엡 5: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엡 5: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엡 5: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엡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엡 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엡 5: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엡 5: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절관주** 벤전 3:7

(엡 5:29)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엡 5: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엡 5:31)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엡 5:32)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모든 인간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바로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성장하면서 친구 관계가 형성되고, 일을 하게 되면 직장 동료와 상사들 간에 관계가 형성됩니다.

가정을 꾸리면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 관계가 형성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들 속에서 성도로서 지키며 살아야 하는 법도를 말합니다.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언급하면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종과 상전 간에 각각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원칙을 다룹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전 구절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전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엡 5: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는 이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란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삶인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부 간에 각기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삶의 원칙에 대해 언급합니다.

먼저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세상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엡 5: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오늘날 '복종'이라는 말은 군대에서나 사용할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들을 수조차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전하면서 고심하는 것이 역력해 보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굴종이 아니라고 부연 설명을 하여 이 구절의 의미를 약화시키려는 노력들을 시도합니다.

물론 그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라도 이 명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시대적인 조류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내가 역량이 뛰어나 사회에 나가 남편보다 더 높은 직책을 맡고 돈을 더 잘 벌지라도 그런 것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남편을 리더로, 아내를 돕는 베필로 세우셨습니다.

이 질서를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엡 5: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엡 5: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할지니라' 헬라어 '휘포타세타이'에는 질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종'이 여자의 열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질서에 대한 순응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머리는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명령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머리가 명령을 받는 몸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몸 없이 머리만 살 수 없고, 머리 없이 몸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몸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하나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교회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복종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종은 단지 명령에 대한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보답으로 지극히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몸의 구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구속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아내를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한 사도 바울은 이제 남편을 향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아무 조건없이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엡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비이기적이며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비유해 설명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엡 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엡 5: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엡 5: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깨끗하게 하사' 헬라어 '카다리사스'는 씻음을 받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헬라어 '하기아세'는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자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런 고로 사랑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함이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듯, 남편들도 아내의 행동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부된 남자와 여자가 본래 한 몸이라는 창세기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창 2: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창 2: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창 2: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 2: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고 그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데려와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일부였고 아담은 하와의 일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이었지만 정말은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아내도 나와 하나된 내 몸의 일부이니 내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엡 5:29)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엡 5: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헬라어 '에크트레페이 카이 달페이'는 '성숙하기까지 따뜻하게 감싼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행하신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해가 되는 것을 제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것 그대로 아내의 물질적 필요, 정서적 필요, 감정적 필요, 영적 필요 등등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이자 남편들이 지켜야 할 결혼 안에 있는 창조 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2 장 24 절을 인용합니다.

(엡 5:31)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합하여' 헬라어 '프로스콜레데세타이'는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러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마무리 합니다.

(엡 5:32)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비밀이란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신약에서 드러난 진리를 말하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관계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는 것임을 밝힙니다.

즉 우리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모델로 삼는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와 하지 않으시고 내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경험한 주의 거룩한 교회는 먼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연합과 하나됨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꾸시고 세우셔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가정은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공동체라면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분명해집니다.

남편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며 사랑을 먼저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돌보아야 합니다.

아내는 가장의 권위를 부여받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신부된 교회가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듯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서의 한 몸됨의 연합의 신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며 교회의 축소판인 가정 곧 남편과 아내에 대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같이 하십시오!

가정은 교회 공동체의 축소판이요,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신비로운 관계가 바로 우리 가정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여 가정을 꾸릴 때 교회 공동체의 축소판인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